설 가정 예배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 다같이

찬송 ………… 430장(통 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다같이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 ………… 가족 중 한 사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가족들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 시편 119:49~56 ………… 인도자

말씀 …………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라** ………… 인도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겨 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꿈이있는 미래

사람이 용기를 얻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용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안정된 상황으로, 사람으로, 많은 것이 준비되어 상황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배경에 불과합니다. 이런 배경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남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등 우리의 신앙생활도 배경이 사라지고 나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배경에 기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담대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배경이 아닌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49절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억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억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배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배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 약속으로 무장할 때,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할 때, 고난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내 중심이 되면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인생의 원천이 되어야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6장 10절에서 욥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때에만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신자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와 가족의 문제, 내 상황을 절대로 내 배경에 맡기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에만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51절에서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조롱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52절 말씀처럼, 주신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밤낮없이 수고하시며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밤에도 우리 가족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54~56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 다같이

기도 ……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 다같이

교제 …… 설 활동 …… 다같이

활동 이름 : 복주머니

준비물 : 준비 복주머니 도안, 카드, 펜

활동 방법 :

1 꿈미 ‘설 명절 자료’(복주머니 도안, 카드)를 출력합니다.

2 도안을 따라 복주머니를 만듭니다.

3 서로를 향한 새해 축복과 성경 말씀을 카드에 적습니다.

4 세배를 한 후 각자의 복주머니에 카드를 넣어 줍니다.